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 에스라- 느헤미야

세션 10, 느헤미야 9-10

© 2024 티베리우스 라타 및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의 가르침입니다.
10회기 느헤미야 9-10장입니다.

성경 느헤미야 9장을 펴십시오. 9장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1절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기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이 달 이십사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며 굶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을 덮고 모였습니다. **2**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외국인들과 구별되고 서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백하였다. **삼**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하루의 4분의 1 동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 사분의 일 동안은 그들이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레위인 다섯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일어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너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였느니라. 모든 축복과 찬양보다 더 높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 직접 언어로 전환됩니다.

6b “당신 만이 여호와 이십니다. 당신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만상과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그리고 당신은 그들 모두를 보존하십니다. 하늘의 군대가 당신께 경배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지도자들은 그들의 모범을 따릅니다. 그리고 잔치의 날 다음에는 금식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율법을 읽고, 죄를 자백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 9장에서 시작하는 이 기도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학 수업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그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전에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관된 주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역대상 16장, 시편 90편, 요한계시록 1:8.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습니다. 당신은 홀로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홀로 여호와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땅, 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은 사람들에게 창조 이야기를 말하는 창세기 1장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창조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계속 보여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축복과 찬양보다 더 높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너 혼자. 당신은 천국과 하늘들의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지만, 선택 교리는 성경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 점을 상기하게 됩니다.

7 주는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시니이다. **8** 주께서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신실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당신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택의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한 것을 당신께서 아셨음이니이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날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11** 그리고 당신은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쳤으니

이제 기도는 역사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서 출애굽 사건으로 옮겨가는데, 이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구약성경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가리킬 것이다. 출애굽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여 오늘까지 이름을 떨치고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음을 당신도 아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넌으며 주께서 그들을 뒤쫓는 자들을 큰 물에 돌을 던짐 같이 깊은 곳에 던지셨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큰 사건인 출애굽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12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희의 갈 길을 비취셨나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불러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 당신께서는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올바른 율례와 참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14**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하셨나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역사 수업이지만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보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대조입니다.

15 절부터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또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다음은 사람들이 순종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들의 불신앙과 대조됩니다. 16절,

16절 부터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은 주제넘게 행하여 목을 곧게 하고 주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17** 그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주 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을 곧게 하고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의 종살이로 돌아갔습니다. **18** 그러나 당신은 기꺼이 용서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풍부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5편에 따르면, 눈 멀고 귀먹고 병어리인 나라들의 거짓 신들과는 달리 여호와와는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를 뜻하신다는 출애굽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선택하신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인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와,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할 것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 그 기도는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심지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요 큰 모독을 행하였음이라. 당신과 당신의 큰 자비는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고 말한 후에 우리는 언약에 신실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들은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나요? 음, 그들은 이집트인들에게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황소의 형태를 한 신인 아피스(Apis) 신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나는 옳다'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다른 신들을 쫓습니다.

이 죄는 얼마나 심각한 죄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마치 결혼식날 밤에 매춘부와 자는 것과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말했습니다. 당신은 방금 '그렇습니다'라고 말했고, 배우자와 자지 않고 매춘부와 자러 갈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들이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한 직후에 실제로는 다른 신들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취 주었느니라. **20** 당신께서는 당신의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만나를 그들의 입에서 거두어들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21**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하셨으나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22 그리고 당신은 그들에게 왕국과 민족을 주시고, 모든 곳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헤스본 왕 시혼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의 불신과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이의 대조입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도 주셨습니다. 9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름답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22절부터 너희는 변성하였느니라. 비록 그들이 믿음이 없었으나 성경은
이르시되

23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들어가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24** 이에 그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매 주께서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땅 백성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셨으니. **25** 그들은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빼앗고 모든 좋은 것이
가득한 집들과 이미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많은 과일나무를
차지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주의 크신 은혜를
기뻐하였나이다.

26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여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 뒤로 던지고
자기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경고하던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셨습니다.

27 그러므로 당신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어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시고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나이다. **28** 그러나 그들이 안식을 얻은 뒤에도
그들이 다시 당신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당신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긍휼대로 그들을 여러 번

건지셨나이다.

이 모든 역사 교훈은 실제로 사사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압제자(미디안인이든 외국인이든 때로는 블레셋인)를 보내시며 그 사람들이 하는 배도의 순환이 있습니다. ? 그러자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구원할 재판관을 보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재판관들은 오늘날 우리 재판관들처럼 검은 예복을 입고 유죄, 무죄라고 말하는 재판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이들은 시민 지도자들이었고 이들은 군사 지도자들이었으며 이 판사들은 그들을 억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런 다음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돌아갑니다. 사사기에는 배도의 일곱 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문이 사람들에게 배도의 주기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다시 오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의 법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29 절부터 경고하셨습니다 .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게 행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주의 규례를 어기고 어깨를 굽히고 목을 곧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0** 당신은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참으시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31** 그러나 주의 큰 자비로 그들을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래서 배도의 순환이 계속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사사 대신에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보라 네가 죄를 범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라 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북왕국은 앗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보내셨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8-3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의 큰 자비로 그들을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으니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32절에서는

32절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에게 당한 모든 환난을 당신에게는 가볍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선지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당신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왕들의 시대부터 오늘까지 이르렀나이다. **33**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에 당신께서는 의로우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성실하게 일하시고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34**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계명과 주의 경계하심을 주의하지 아니하였나이다 **35** 그들의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은총과 그들 앞에 베푸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도 그들은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한 행실을 그치지 아니하였나이다 **36** 보라, 우리는 오늘날 종이다.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열매와 좋은 선물을 누리라고 주신 땅에서 우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37** 그리고 그 풍성한 수확물은 우리 죄 때문에 당신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왕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은 우리 몸과 우리 가축을 마음대로 다스리므로 우리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38^e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서면으로 굳건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 봉인된 문서에는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다섯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는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성약을 맺을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언약을 맺을 뿐 아니라 점선에 서명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봉인을 하고 싶고, 이 약속을 서면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 보면 실제로 전체 장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좋은 요약입니다.

그분은 단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습니다. 성경은 좋은 법을 말합니다. 그분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붙드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언약에 서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고 싶고, 약속을 기록하고 싶고, 언약을 인봉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10장은 언약, 서명자, 약속,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7장에서 데마의 인장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장에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와 스가랴와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단에는 제사장 21명, 레위인 17명, 평신도 지도자 4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10장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 그들은 또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 그들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흥미롭게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에 28절과 29절에서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28 “나머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임 사람들과 이방 백성과 절교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과 지식과 총명이 있는 모든 사람, **29** 그들의 형제 귀족들과 함께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우리 주 여호와 의 모든 계명 과 율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

보라, 그들은 율법을 들었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 언약을 맺고 싶다고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말로 만들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문서로 봉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맹세는 저주까지 강화되었습니다. Williamson은 자신의 논평에서 이것이 아마도 어떤 형태의 판단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그들이 약속한 조건을 위반하면 정당하게 그들에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합니까? 그 규정은 30절부터 39절까지인데, 통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며 그들의 딸을 우리 아들로 삼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가져오면 우리는 안식일이나 성일에 그들에게서 사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규정은 몇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통혼으로. 이번에도 다른 나라와의 통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기로 다시 언약하기로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통혼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변화가 나타날 때,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31절에 나오는 일입니다.

만일 그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곡식을 가져오면 우리는 안식일에 그들에게서 사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모든 측면이 변합니다. 개인이든, 사업이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돈으로 하는 일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3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봉사를 위해 매년 삼분의 일, 즉 세겔의 삼분의 일을 내는 의무를 집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세겔의 반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세겔의 삼분의 일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통화 시스템 때문에 매우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화폐 시스템은 과거와 달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 달러 대 유로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는 1/2에서 3분의 1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 봉사에 드는 비용으로 한 세겔과 곡식과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돈을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우리가 해마다 땅의 첫 열매와 모든 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와 전에 가져오는 것이 의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돌아가서 여호와와 집에서 필요한 일을 처리하겠다고 성약을 맺습니다.

그뿐 아니라 38절에는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율법에 따라 십일조를 다시 제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성약을 맺으면 관계, 사업, 돈을 사용하는 일 등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구절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 대해 생각. 돈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당신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 케이블 TV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에게 내는 것보다 전화 요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대답할 수 없고 당신도 나를 대신해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헌신과 언약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을 맺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봉하고 서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옳은 일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적이고 살아 있고 날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계, 사업 수행 방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볼 수 있는 변화입니다.

변화는 겉으로 보이는 변화일 뿐만 아니라, 겉으로도 보이는 변화여야 합니다.

이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의 가르침입니다. 10회기 느헤미야 9-10장입니다.